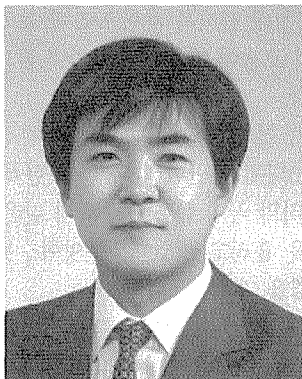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협력과 전망

이 자료는 "Energy Policy" 5월호에 실린 논문(영문)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註) 본고에서 사용된 "동북아시아"라는 용어는 넓은의미로 소련극동, 몽고, 중국의 동·북·서북부, 대만, 한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白根旭

<英國 애버딘大學 정치/국제관계·경제학과 박사과정>

최근 동북아시아에서는 다국간의 경제협력 추세에 따라 다국간의 에너지관계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년동안 이 지역에서는 상호간 에너지 관계의 긴밀화로 인해 이러한 상황은 지난 몇십년에 비해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에너지협력관계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분쟁지역이나, 원거리지역에서, 미개발 석유와 가스자원의 개발에 대한 길을 열어 주고 있다. 만약 유럽에너지현장의 개념과

구조와 유사한 對 에너지 범동북아시아협정의 체결은 보다나은 에너지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다. 최종단계에 있는 유럽에너지 현장에서 제도적인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저한 정치·경제적 변화를 겪고있는 동북아시아에도 이와같은 조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사실 1980년 후반에야 비로써 한국과 두 中國, 구 소련간의 상호 에너지 관계라는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 국가간의 에너지협력을 바탕으로 소련연방공화국, 中國,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에너지현장」 또는, 「동북아시아 에너지체제」의 출현가능성모색은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지리경제적인 양상은 중국-소련간의 화해, 한국과 구소련의 국교정상화,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미국과 북한의 정치관계개선, 日本과 북한·한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등으로 지정학적관계를 급격하게 바꿔놓고 있다. 더욱이 소위 「동북아시아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국가간의 경제관계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의 야심에 찬 Tumen유역개발계획(Tumen River Basin Development Scheme)이 진행중에 있는 등 이 지역에서의 다국간 경제관계는 보다 성숙한 진전이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다국간경제협력의 움

직임은 이 지역에서 다자간 에너지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며, 에너지분야의 협력과 조정, 최적의 에너지 이용과 환경보호등으로, 東과 西를 포함하는 유럽에너지공동체(European Energy Community)의 창설을 목표로한 유럽에너지헌장(European Energy Charter)의 구조와 유사하게, 「동북아시아에너지헌장」(Northeast Asian Energy Charter)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관계〉

소련과 中國

정치적 영토분쟁으로 30여년동안 중단됐던 中國과 소련과의 에너지관계가 재개되고 있다. 1989년 5월, 中國의 이붕총리와 소련의 리츠코프총리간에 국교정상화 합의후 1990년에, 1990~2000년기 제2차 의정서에 조인하고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명시하지 않은 비철금속, 석유화학, 천연가스, 농업, 수송, 그리고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키로 했다. 그리고 1990년 11월에 소련은 中國의 2~3개 유전에 대해 턴키방식으로 개발을 도우며, 중국은 서시베리아 Tyumen지방에 있는 2개의 유전에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1990년 12월에, 中國의 한신문은 中-蘇 에너지협력의 첫 성과로 소련과학자가 고안한 “전기장비례배분법(Electric Field Proportional Distribution Method)으로 河南지방에 있는 南陽유전의 발견에 대해 환영했다.

臺灣과 中國

臺灣정부는 中國본토와의 에너지협력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거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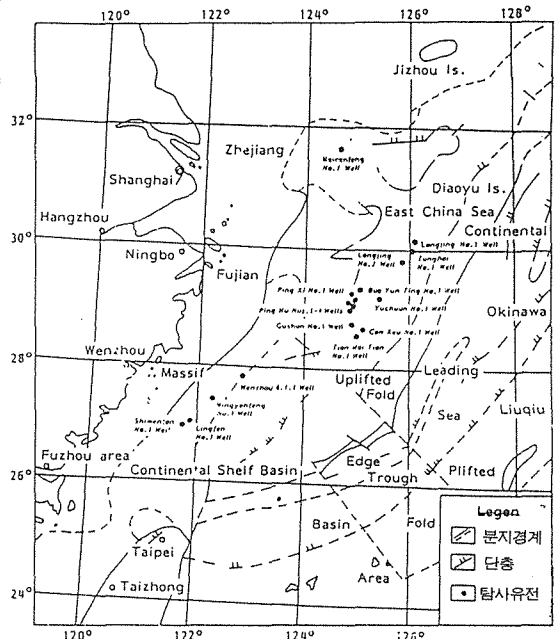
1990년 5월 中國은 대만의 TPC(Taiwan Plastic Corp)가 제안한 에틸렌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양측은 福建省에 1991~93년까지 1.27백만mt 규모의 에틸렌공장 건설에 관해 조인했다. 또한 그해 말에 臺灣국립대학교의 해양연구소(The Institute of Oceanology)와 廣州에 있는 中國의 연구기관 시니카 남지나해 해양연구소(Sinicas South China Sea Institute of Oceanology)는 석유부존과 지구물리학적구조, 해류와, 대만해협 지질학적 특징에 대해 정식

으로 정기적인 정보교환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같은 움직임은 中國이 제안한 특별유가에 대해 대만의 경제부서(Taiwan Ministry of Economics Affairs)의 거절과 같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석유탐사의 제후에 대한 진일보한 첫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臺灣과 소련간에 어떠한 친선관계가 없었음에도 1990년 4/4분기동안 대만석유공사(The Chinese Petroleum Corp (CPC))는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유구입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또한 CPC는 Tyumen에 있는 Salyn유전을 시찰하도록 대표단을 파견하고 CPC집행부와 한 소련단체(a Soviet Association)는 동유전개발에서의 CPC역할에 대해 협의했다.

韓國과 소련

1990년 9월말 한국과 소련간의 관계정상화는 에너지협력에 대한 길을 열어 주었다. 1987년 3월과 1988년 3월, 그리고 1990년 2월에 油公, 湖油와 같은 한국의 정유회사는 소련으로부터 총 4천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수입했으나, 첫번째 소련産 원유수입은 (총량 106,000배럴, 유가 3백만달러 상당) 호남

〈그림 1〉 동지나해의 석유가스전



〈자료〉 China Oil, No. 22, 1989, p 17.

정유에 의해 1990년 9월말, 현물구매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1991년 7월 진도(株)는 한 소련단체와 5백만배럴의 소련원유를 직접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석유와 가스탐사, 생산에 관계된 투자가 있었으나 단 두차례만 성과가 있었다. 첫번째는 (株)現代와 Kalmyk Republic이 석유시추와 정제부문의 공동투자에 대한 협정조인이며, 두번째로 (株) 삼성은 MDSeis가 제안한 서시베리아의 4개유전에서 증산을 위해 3백만달러를 투자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동원연합탄광주식회사의 사할린해안에 있는 오크루츠노에(Okruzhnoye) 탐사를 위해서 연합기업(joint Venture)의 설립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선행조건(관리, 출자율, 수입배분 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업착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투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잠재력은 오크호트스크海와 야쿠트스크지역 사할린연안 개발에 달려있다. 1991년 7월 (株)現代, BHP(Broken Hill Proprietary Co. Ltd) 그리고 Amoco로 구성된 국제컨소시엄은 Sakhalin morneftegas가 제안한 동북 사할린 근해의 주요 4개 석유와 가스田 개발에 입찰했다. 그 입찰 결과는 1991. 10월에 발표하기로 되었으나 소련쿠데타의 실패로 그 담당부서는 해체되고 공화국수준의 기관으로 재구성되고 그 결정은 연기되었다. 사할린정부는 채굴권승인에 대한 최종결정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한국회사인 Palmco Ltd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취해 왔으며 책임있는 사할린당국과 계약하였고, 同社측의 목표로는 룬스코에 가스田(Lunskoye)으로 총비용 32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건설은 Ralph M·Parsons Co의 감독하에 소련단체(VNIST와 MESLNIKOV Institute)와 공동으로 한국컨소시엄이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사업(사할린계획)에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韓國과 中國

中國의 CNOOC(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는 공식적으로 1991. 5월 한국정부에 대해 황해연안의 공동개발을 제의했다. 1971년 5월과 6월에 황해에서 일련의 한-미 공동 탐광조사와 1973년 2~

6월에 걸친 걸프社의 한국해저광구(대륙붕) II에 대한 시추탐사에 대하여 中國의 격렬한 항의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일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이번의 제의 그 자체는 획기적인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中國의 전근해(황해와 동지나해) 개발협력은 대륙붕 경계구획에 대한 타협없이 불가능 할 것이다. 최근 한국해역에서 진행중인 연해탐사에 대한 中國의 항의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한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과 中國간에 어떠한 외교적 관계가 없었음에도 1988년 중반이래로 油公, 湖油, 京仁에너지, 極東精油에 의해 中國産원유(주로 Shengli, chengbei유전)를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규모는 1988년 약 340만배럴, 1989년의 810만배럴, 1990년의 720만배럴에 이르고 있다. 그 이외에 1988년 8월, 中國 화공진출구총공사(SINOCHEM)은 한국의 極東精油에 대해 증질원유를 경질석유제품으로 정제하여 中國에 보내주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의 한 보도에 따르면 SINOCHEM은 서울에 자사지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국과 中國간의 에너지 협력관계는 양국의 국교정상화문제가 해결된다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990년 10월 한국과 中國정부의 협정에 따라 1991년 2월 北京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이것은 단지 시간문제 일것으로 전망된다.

北韓

동북아시아에서 北韓의 에너지관계는 미미한 것이나 구소련과 中國과의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관계는 특별한 케이스로 평가된다. 1986~89년 동안 구소련과 中國으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각각 150~190만톤과 12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北韓의 현재 정제능력은 약 350만톤이며 주요 공급국의 감산으로 전대미문의 에너지부족난을 겪고 있다. 또한 소련은 北韓에 대해 1991년부터 국제통화결제를 경화로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고 中國 또한 같은 실정이나 원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지는 확실치 않다.

北韓은 그동안 자체에너지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안찾기에 부심하고 있던 중 1988년과 1989년 인근 황해에서 유전을 발견하였으나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北韓은 외관상으로 소련產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자내영토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매설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 않으며, COCOM(Consultative Group Coordinating Committee) 규정에 의한 미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30,000배럴의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은 안정적인 석유공급의 확보를 위한 북한의 의지와 에너지협력을 위해서라면 日本, 심지어 한국과도 적극적인 교섭을 취한다는 북한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日本과 中國

日本은 1970년대 중반이래 中國產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 되었다. 中國은 일본으로 하여금 소련의 동시베리아와 사할린 석유가스개발에서 거리를 유지케 하기 위해 자국의 원유를 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타림분지(The Tarim Basin) 개발에도 적용되고 있다. 신강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타림분지는 제8차 5개년계획(1991~95) 기간동안 주요탐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석유와 가스부존량이 120억톤까지 추정되는 이 광상에서는 27개의 유전이 개발되어 왔다.

1991년 4월 中國의 한 고위관리는 日本 캐나다, 美國등을 방문하고 투자문제를 협의했으며 그 결과 JNOC(The Japan National Oil Corporation)은 1991 7월에 석유가 풍부한 타림분지에 대해 5년동안의 광상탐사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약 80억円(5천8백만달러)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후, 석유·천연가스 석탄 자원의 개발을 촉진토록 中國에 약 51억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1979년의 31억달러, 1984년의 42억달러에 이은 세번째 일본으로부터 자원개발 차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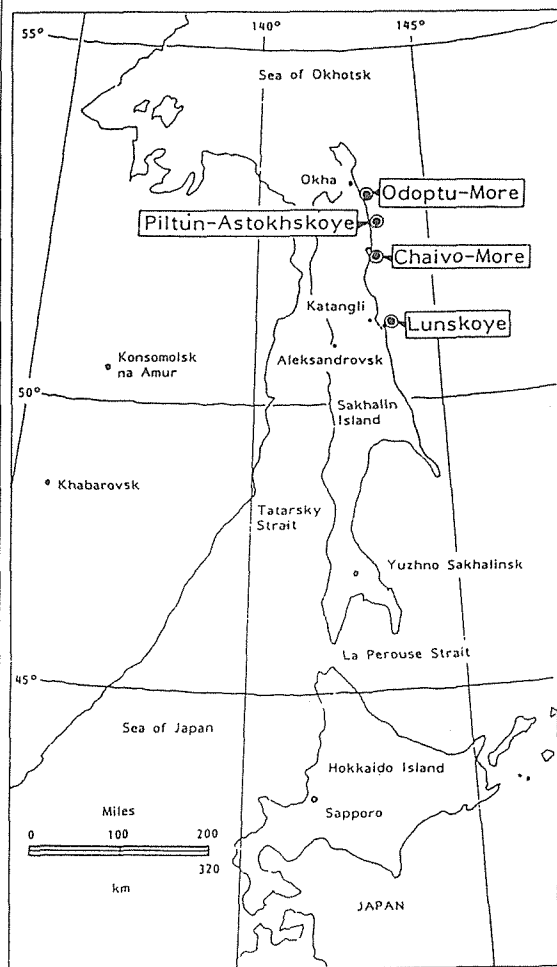
특히 타림분지의 경우 동지나해의 실질적인 개발을 위해 야심적인 계획으로 동 사업을 착수했으며, 1990년 3월에는 동지나해에서 17개의 유전에 시추를 벌인결과 그중 8곳은 상업적 타당성을 6곳은 전망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림1은 동지나해의 유

전과 가스전의 위치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 동지나해의 완전한 개발을 위해서 중국은 일본과 Senkaka섬 분쟁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타림분지와 동지나해는 1990년대의 다자간에너지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지역이 될 것이다.

日本과 소련

1990년대의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협력개발은 日本과 소련간의 타협에서 가능할 것이다. 현재까지 쿠릴열도(Kurile Islands)에 대한 분쟁은 두 나라간의 에너지 협력에 최대의 장애요소이다. 예를들어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ODE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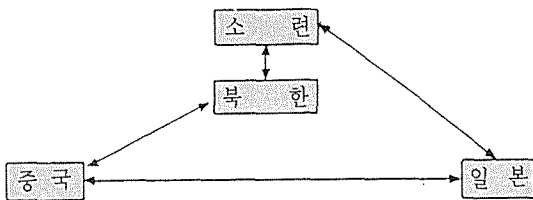
〈그림 2〉 사할린연안의 석유·가스전



〈자료〉 Oil and Gas Journal, 18 March 1991. p 35.

(Sakhalin Oil Development Cooperation Co Ltd)가 1977년, 1979년에 사할린 연안에서 *Odoptu-More*와 *Chiano-More* 유전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중 이들 유전개발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나 쿠데타 실패 직후 日本은 소련에 대한 강경책을 완화하기 시작했고 소련이 쿠릴열도에 대한 처리를 암시한 후(보리스·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금세기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 日本은 침체일로에 있는 소련석유생산을 돕도록 1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Sodeco, Mitsui, Idemitsu Kosan, Mitsubishi, C·Itoh & Co, Nisso Iwai Corp*와 *Shoseki Oil Development Co*,와 같은 다수기업들은 *Sakhalinmorneftegas*가 제의한 입찰에 응함으로써 소련극동지역에서 석유·가스개발에 대한 日本의 관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日本은 소련에게 전적인 지원을 위한 조건으로 사할린프로젝트에 *Sodeco*가 참가하도록 했다. 이는 日本이 어떻게 소련에 대한 에너지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암시해 주고 있는 대목이다. *JNOC*는 *Sodeco*의 주요지분(49.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日本정부의 영향이 간접적일지라도 *Sodeco*의 방향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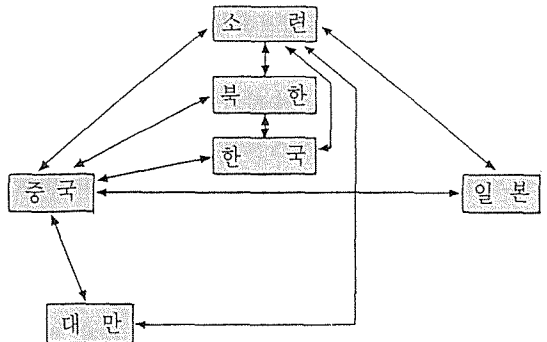
〈그림 3〉 1980년 중반까지의 동북아시아 상호간 에너지 관계의 단순유형도



〔지역적 전망〕

그림3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몇년동안의 동북아시아에서 상호간 에너지 관계는 지난 20년간에 비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련 보스토크계획과 中國타림, 그리고 동지나개발계획과 같은 야심적인 에너지개발계획은 동 지역의 에너지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다국간의 에너지 관계로의 추세반영이 될 것이며, 그림5에서와 같이 동 지역에서의 다

〈그림 4〉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동북아시아의 상호에너지 관계의 단순유형도



자간·상호간의 관계에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소위 보스토크플랜으로 명명되는 20년간의 소련극동 캠페인은 이런 추세 of the 전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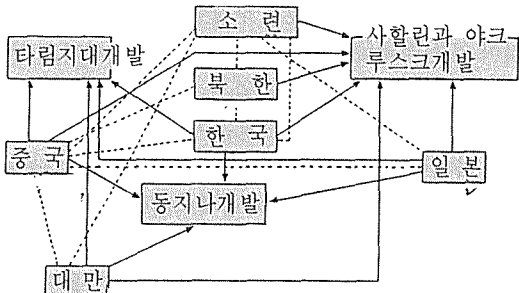
많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보스토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도표 1에서와 같이 이 계획은 2005년까지 소련에 가스를 연 1,570만톤 한국과 日本에 연 600만톤, 북한에 130만톤을 공급하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그림-6〉에서와 같이 1995년까지 소련과 북한을 경유하여 사할린으로부터 한국에 이르는 총연장 3,230km의 가스라인을 부설하고, 2000년에는 *Yakutsk*에서 *khabarovsk*까지 3,050km의 배관망을 부설한다는 것이 동 계획의 핵심이며 동 계획에 소요되는 총 투자비는 대략 282억 루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때 사할린협정 그 자체는 보스토크플랜의 완전한 개발을 향한 첫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소련이 美日 컨소시엄 (*Marathan Oil Co*, 미국의 *McDermott International Inc*, 日本의 *Mitsui & Co*)에 사업개발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인근국들과 벌이고 있는 다국간에너지 프로젝트의 시현은 지체될 것이다. 또한 컨소시엄에 의해서 사할린연안 석유가스전이 개발된다면 *Yakutia* 가스田개발에서 日本은 당분간 사업참여를 미룰 것이므로 이럴 경우 사할린 연안 가스중의 백만톤을 한국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첫단계 보스토크플랜은 무산될 것이며 수혜국과 인근사업참여국을 포함하는 참된 의미의 다자간 에너지프로젝트는 *Yakutia* 가스전 개발과 소련극동지역의 파이프라인 망구축에 있어서 한국, 북한, 中國 그리고 日本이

참가할 때야 비로서 가능할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1990. 10월, Yakut-Sakha공화국이

〈그림 5〉 1990년대 동북아시아의 예상되는 다자간, 상호간 에너지 관계



외국기업에게 탄화수소자원의 개발과 탐사를 위해서 Yakutia 서남부지역을 포함하는 17개 지역을 개방한다는 결정은 보스토크플랜을 착수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 1991년 6월, 가장 많은 매장량을 자랑하는 유전(chayandinskaya와 illeginskaya)을 오스트리아 국영석유회사인 OMV에 사업 승인을 했으며, 그리고 OMV와 Lenaneftegas Geologija간의 공동기업은 현재 Yakutsk지역의 확인매장량 28조 평방피트(tc)를 한국과 日本에 이르는 총연장 2,500마일의 파이프라인을 커버하는데 필요한 42~52tc까지 매

장량을 확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The Open Littoral Zones은 소련·중국·북한국경의 한 지점에 있는 Tumen River Basin Area(튜멘 유지대)이다. 이 지역은 북한의 천진항으로부터 中國 Yanji市까지, 그리고 북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과 3억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日本과 한국 그리고 中國의 Jilin省과 Heilongjiang에서 주요시장에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UNDP는 예비결론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로테르담과 홍콩과 같이 동북아시아지역(mainland)의 무역과 교통중심지대로써의 Tumen 유역개발은 바람직하며 향후 20년간 약 300억달러가 소요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UNDP프로그램과 보스토크플랜 사이에는 대단히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다. UNDP 프로그램이 보스토크플랜과 공동보조를 취해 나간다면 이 지역은 소련産 가스수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일단의 32개의 日本기업군들에 의해 제기된 아시아에너지공동체계획(Asian Energy Community Plan)은 소련가스의 수혜국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7〉에서 보는 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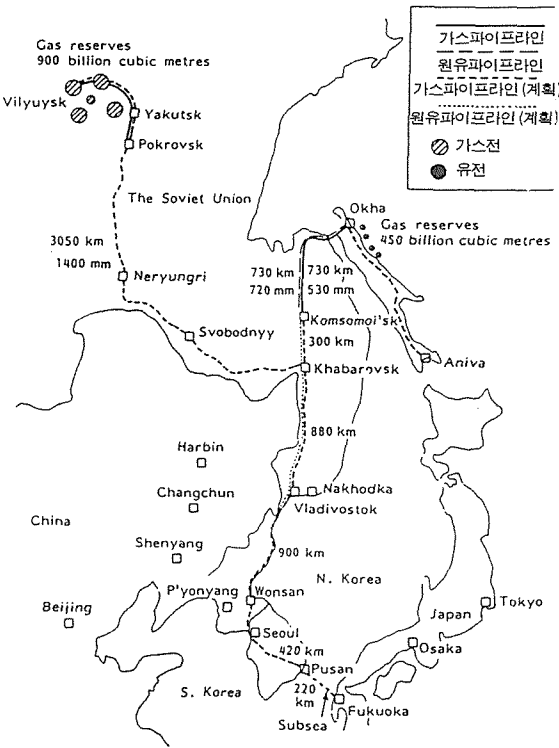
(표 1) 소련 극동 가스 수급

(백만톤)

	1995	2000	2005	2010
생 산	3.34	22.5	29.0	32.0
사 할 린	3.34	14.9	15.7	14.7
야쿠트스크	-	7.6	13.3	17.3
국 내 소 비	2.34	10.9	15.7	18.7
기 타	0.07	2.5	3.3	3.5
Sakhalin	0.93	1.3	1.5	1.7
Yakutsk	-	2.0	2.3	3.3
Amur	-	0.6	1.3	1.7
Komsonolsk	1.34	2.0	2.0	2.0
Khabarovsk	-	1.5	3.0	3.0
Primorsky	-	1.0	2.3	3.0
수 출	1.00	11.6	13.3	13.3
N. Korea	-	1.3	1.3	1.3
S. Korea	1.00	6.0	6.0	6.0
Japan	-	4.3	6.0	6.0

〈자료〉 Concept of Development Yakutian and Sakhalin Gas and mineral Resources of Eastern Siberia and USSR Far East(소위 the Vostok Plan), op cit, Ref 44.

〈그림 6〉 사할린과 야쿠트스크 천연가스 프로젝트



〈자료〉 현대자원개발주식회사

같이, 이 계획은 소련극동지역의 야쿠트스크로부터 중국, 한국, 日本, 대만, 그리고 ASEAN6국(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을 경유하여 濠洲서북부의 Dampier에 이르는 총연장 26,900 km의 파이프라인망 부설계획이다. ASEAN6국에 연결하는 100억달러 상당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조사는 1991년 말에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계획은 장기적인 전망에서 보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아시아 에너지 공동체계획」의 현실가능성은 정치적 요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불투명 한것으로 평가된다. 이 모든 계획의 가장 중요한 성패는 동북아시아의 가스라인망 구축에 있을 것이다. 만약 日本측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아시아 가스망의 완성을 위한 전망은 한결 실현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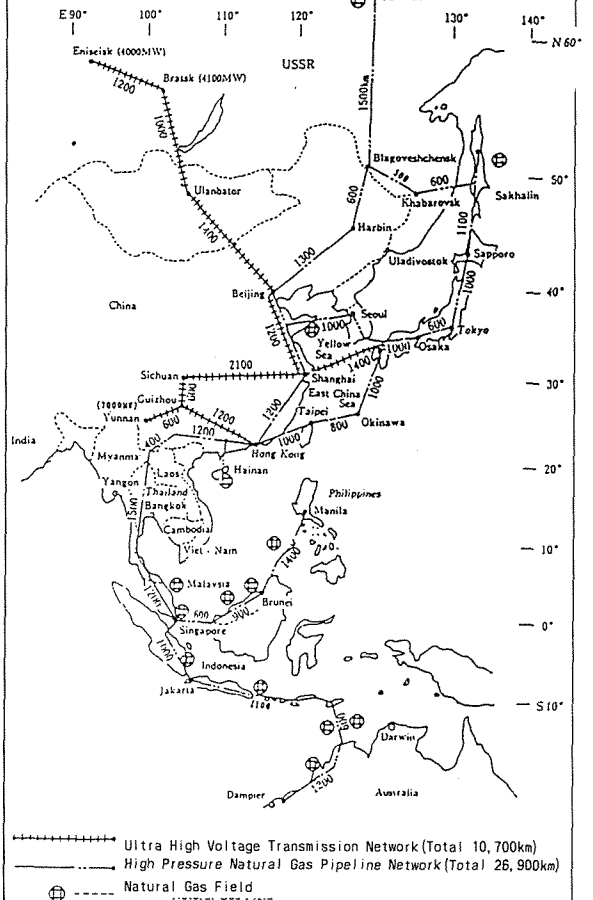
[에너지 현장]

보스토크계획(북한경유 한국에 이르는 파이프라인

인 건설), 또는 아시아에너지공동체계획의 착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주요과제는 정치적인 신뢰구축이다. 동해를 가로 지르는 해저파이프라인이나, 中國의 동부·북부를 경유하고 황해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부설한다는 것은 구상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기존 적대국들간의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상호관계속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긴장들을 흡수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너지체제(NAER: Northeast Asian Energy Regime)구축과 함께 동북아시아에너지 현장(Northeast Asian Energy Charter)의 제정은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

〈그림 7〉 아시아에너지 공동체계획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망



〈자료〉 Proposal of Asian Energy Community, Masaru Hihara, University of Tokyo, July 1991.

다. 그것은 자원의 분배와 최적 이용을 위한 바람직한 신뢰공토를 만들 수 있고, 안정된 에너지공급과 동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체제 (framework)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주요생산요소간의 불균형은 역설적으로 에너지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막대한 석유와 가스부존량을 자랑하는 소련연방공화국과 중국은 자본·기술 그리고 탐사와 개발을 위한 장비가 절대 부족하며, 반면에 자본·기술·장비를 갖춘 日本·臺灣·한국등은 中東지역에 대한 심한 의존도를 완화시키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분산)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상호이익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협력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정치적인 측면에까지 파급되는 특성을 갖는 에너지, 특히 석유의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이다. 만약 에너지에 대한 범-동북아시아협정에 의해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과 日本까지 「소련가스파이프라인 매설」이라는 난제가 해결된다면 그 자체는 기존 적대국간의 상호불신과 정치적 난관을 해소하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너지현장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에너지현장에서 채택한 주요 두가지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 하나는, 에너지비축, 공급의 다양화, 공급망의 통합, 핵안전, 환경보전등과 같은 에너지정책의 중심문제에 대하여 모든 동북아시아국가들의 의견집약(컨센서스)를 도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지역에서 중장기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합리적인 개

발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법률적기구, 필요하다면 실제적인 자본이전, 관리능력,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괄하기 위한 재정기구등의 창설이다.

한편 태평양경제협력회의 (The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산하의 MEF(The Minerals and Energy Forum)가 1986년 이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광물과 에너지 분야에 관계된 핵심문제에 대해 협력과 협의를 위한 포럼을 개설하고 있으며 만약 이 지역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이니셔티브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최초 정부간 협의체인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상태에서 APEC회원국이 가까운 시일내에 에너지개발에 대하여 동북아시아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인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자기의존적 에너지시스템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에너지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목적을 둔 동북아시아 에너지체제(Northeast Asian Energy Regime)의 창설은 하나의 대안으로써 생각해 볼적이다.

상호간의 에너지관계면에서 현저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는 다자간에너지협력을 위한 가시적인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유럽에서와 유사한 「동북아시아에너지헌장」(Northeast Asian Energy Charter)의 제정은 이 지역에서 에너지협력의 신기원을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

〈朱珽彬 畝鎔〉

(편집자註)

○ 본고에서 사용된 국호명은 원고대로 표기하였음.

(例 CIS→소련연방공화국, 구소련, 소련)

〈표 2〉 동북아시아국가간 생산요소간 분포

	석유가스	석탄과 광물	노동력	자본	기술	관리능력
소련	VR	VR	VP	VP	S	S
중국	R	VR	VR	VP	S	S
대만	S	S	S	R	R	R
북한	A	R	R	VP	VP	VP
한국	A	S	S	R	R	R
일본	VP	S	S	VR	VR	VR

〈註〉 VR=매우풍부, R=풍부, S=부족, VP=매우부족, A=없음